

더 넓어진 꽃정원·더 깊어진 나주다움 선보인다



여기가 핫플 ‘2026 나주영산강축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7일부터 11일까지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6 나주영산강축제’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진화한 축제로 관광객을 맞는다.

꽃단지는 지난해 약 7만평에서 약 12만평 규모로 대폭 넓어졌고 영산강과 나주의 역사, 문화, 생태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주제관은 몰입형 콘텐츠로 고도화된다.

왕건과 장화왕후, 양암바위 전설, 천년나주목사 부임행차 행렬 등 ‘나주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강화하고 교통과 편의시설도 손봤다.

여기에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소비가 나주 지역 상점과 골목상권까지 이어지도록 ‘광 없는 행운소비복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도 마련해 ‘보고 떠나는 축제’를 넘어 ‘머물고 체험하고 소비하는 체류형 축제’로 변화를 꾀한다.

△12만평 규모 영산강이 거대한 꽃정원으로 변신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더욱 넓어진 영산강정원으로 지난해 약 7만평 규모였던 꽃단지를 올해 약 12만평 규모로 크게 확대했다.

역만송이 코스모스를 비롯해 댐사리, 해바라기, 백일홍, 팬드라미 등 다양한 가을꽃이 영산강의 수변 경관을 배경으로 장관을 이룬다.

한 장소에 꽃을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축제장 곳곳을 걸으며 서로 다른 가을 풍경을 만날 수 있도록 조성해 축제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이 되도록 했다. 낮에는 형형색색의 꽃과 영산강을 배경으로 가을 정취를 즐기고 해가 지면 공연과 야간경관을 함께 경험하며 하루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올해 축제의 방향이다.

나주시는 축제를 계기로 영산강의 수변 생태환경과 산책로 등 기존 자연환경과 정원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영산강정원을 나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키워갈 계획이다.

△왕건·장화왕후에서 목사 행차까지…‘나주니까 가능한’ 축제

올해 축제의 또 다른 특징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연보다 나주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개막일인 7일에는 나주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인 장화왕후와 고려 태조 왕건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주제공연 뮤지컬 ‘왕후, 장화’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8일에는 영산강 양암바위에 전해 내려오는 ‘아랑사



‘2026 나주영산강축제’가 7일부터 11일까지 영산강정원에서 보고 즐기던 축제에서 머물고 참여하는 축제로 변모해 선보인다.

대규모 꽃단지 ‘눈길’…체험 늘리고 교통은 더 편하게
나주만의 역사문화에 행운복권까지…지역 상권 ‘활짝’
보고 즐기던 축제 극복…머물고 참여하는 축제로 변모

아비사’ 설화를 무대예술로 재탄생시킨 시립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지며 지역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합창과 무용, 음악을 더해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객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이어 조권과 아이비, 마이클리가 출연하는 ‘뮤지컬 드라마틱쇼’가 영산강의 가을밤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대형 공연장에서 만날 법한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의 대표 무대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영산강축제의 대표 공연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천년나주목사 부임행차 행렬’도 눈여겨봐야 한다.

조선시대 호남의 행정·문화 중심지였던 나주목의 역사적 위상을 되살리는 동시에 단순한 재현 행사에 머물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행렬에 참여하는 대규모 참여형 역사문화 콘텐츠로 꾸민다.

나주의 전통문화 자산인 천연염색 역사 축제의 무대에 오르며 수퍼호텔 바들선과 시민모텔이 함께하는 천연염색 패션쇼를 통해 나주의 색과 멋을 현대적으로 풀어낸다.

여기에 나주학생독립운동의 발단이 된 1929년 나주역 ‘댕기머리 사건’을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창작 무용극 ‘댕기머리’까지 더해져 영산강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나주 역사문화 콘텐츠를 완성한다.

△아이·부모 함께 ‘직접 해보는 축제’
올해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4개소로 운영했던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키자니아’는 올해 7개소로 확대하고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핑크퐁과 티니핑 상어퐁소도 각각 두 차례씩 마련했다.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이자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전속한 ‘2026 나주방문의해’ 홍보대사인 안유성 셰프와 함께하는 ‘영산강에

서 맞는’ 미식 오케스트라’도 올해 새롭게 선보인다.

보드게임과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목사행차 등을 더해 공연을 객석에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축제의 한 부분이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영산강 주제관도 단순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영산강의 자연과 생태, 역사와 문화를 보고 듣는 것에 체험과 교육, 시민참여 요소를 결합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영산강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축제 대표 브랜드 콘텐츠로 고도화한다.

△“차는 두고 서를 타세요”…축제장 접근성 강화

관람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대책과 편의시설도 강화한다.

지난해 축제에는 5일간 52만 명이 방문하면서 축제장 주변 도로는 극심한 교통난을 겪었고 주차장에서는 차량이 집중돼 주차난이 발생했다.

나주시는 지난해의 경험을 교훈 삼아 올해 나주시청과 한전KDN, 영산포둔치체육공원 3개 권역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무료 직행 셔틀버스를 집중 운영해 자가용 이용객을 분산할 계획이다.

셔틀버스의 배차 간격을 10분으로 줄이고 탑승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축제장 접근 과정에서 셔틀버스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전용 노선을 마련해 관광객이 외곽 주차장에 차량을 두고 편리하게 축제장을 오갈 수 있도록 한다.

축제장 내부에서도 화장실을 지난해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대기시간이 긴 여성전용 화장실을 확대·분산 배치한다.

그늘막과 의자 등 휴게공간과 쉼터를 확충하고 미야방지 팔찌와 ‘가족 만남의 장소’를 새롭게 운영하는 등 어린 자녀와 함께 방

문하는 가족 관광객의 불편도 세심하게 줄인다.

먹거리 공간도 미식관 17개소에서 19개소, 푸드트럭 14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테이블 배치와 유모차·휠체어 이용 공간 등을 개선한다.

△나주 전역서 소비하고 받은 상점 영수증이 ‘행운복권’으로

올해 나주영산강축제는 축제장 안의 흥행을 지역 상권의 매출로 연결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광 없는 행운소비복권’으로 11일까지 축제장을 제외한 나주 지역 점포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축제장으로 가져오면 결제 금액에 따라 즉석복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1매,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2매, 10만원 이상은 3매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하루 최대 3매까지 참여할 수 있다.

복권에는 총 1억2000만원 규모의 나주시 랑상품권이 걸려 있고 최대 100만원의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축제장에서만 소비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축제 전부터 나주 곳곳의 음식점과 카페, 상점 등을 이용하게 하고 그 영수증을 들고 다시 축제장을 찾도록 해 관광객의 동선을 지역 전체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축제기간 발생하는 소비가 행사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원도심과 영산포, 빗가람동을 비롯한 지역 상권까지 흘러가도록 해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축제로 그치지 않고 ‘나주시 보내는 하루’ 만든다

결국 올해 나주영산강축제의 변화는 ‘더 많은 프로그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꽃단지를 대폭 넓히고 나주의 역사와 설화를 공연으로 만들며 아이들이 직접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했다.

셔틀버스와 각종 편의시설을 개선해 머무르기 편한 축제를 만들고 지역에서 쓴 영수증을 축제의 즐거움으로 되돌려 지역 상권까지 축제의 범위를 넓힌다.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열리는 이번 영산강축제는 관광객에게 단순히 축제 한 편을 보여주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나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와 맛을 하루 이상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나주시는 이를 통해 영산강정원을 축제가 있을 때만 찾는 공간이 아니라 사계절 사람들이 머물고 다시 찾는 관광거점으로 성장시키고 축제의 활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글=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